



I am **Sister Mary Kay Neff**. I grew up in Altoona, PA and have known the Sisters of Charity since high school. I fondly remember Sister Felicity Diggin's warm welcome in homeroom at Bishop Guilfoyle High School. While pursuing a bachelor's degree in art at Penn State University, I met Sister Mary Janice Grindle, a graduate student in art history who encouraged me in my vocation. Shortly after graduation,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with Sister Maria Goetschalckx.

As an artist I support the mission of the Sisters of Charity by teaching graphic design and digital imaging courses at Seton Hill University and working with Seton Arts Service Corps as Associate Professor of Art. I really enjoy working with the students and helping them to develop as designers and artists. I work with Sister Kathleen McGrady, Director of the Seton Arts Service Corps, by helping to recr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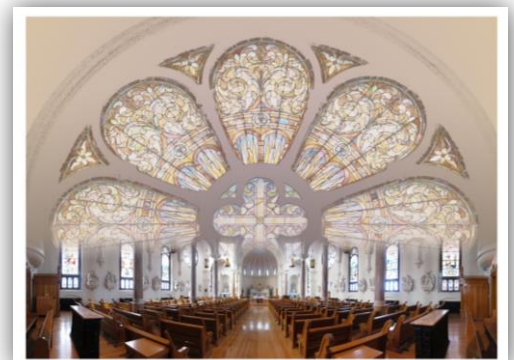


student scholars and by serving as the coordinator between the Seton Hill University's Division of Visual and Performing Arts and the Sisters of Charity.



Through my graphic design contributions in the production of *Celebration* and other materials about the sisters, I spread the charism of the Sisters of Charity. In addition to graphic design, I am a photographer specializing in alternative photo processes, which I learned while a graduate student at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My professors urged me to photograph what I know. Recently I have been exhibiting photos of Saint Joseph Chapel at Seton Hill University, a place I have known for a long time. I have been in this chapel many times for communal and private prayer, or just passing through on the way to classes in Maura Hall. The beauty of the chapel never ceases to inspire me. The goal I have for my photos is to show the beauty of creation through landscapes, everyday objects, and family memories. Even though much of my work does not use religious imagery, I have always taken photos and created photo composites from a spiritual perspective. Relationship with God, connection with nature, showing the beauty of God's creation—these ideas are the underpinnings in my photos.





저는 메리 케이 네프 수녀(Mary Kay Neff)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알투나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 수녀님들을 잘 알게 됐어요. 비숍 길포일 (원뜻: 길포일 주교) 고등학교에 처음 갔을 때 펠리치타 더긴 (Felicita Diggin)수녀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셨던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네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메리 제니스 그린들(Mary Janice Grindle)수녀님을 만났는데 수녀님은 미술사를 전공하신 분이셨고 제가 성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수녀회에 입회했는데 제 동기는 마리아 고척 수녀(Maria Goetschalckx)랍니다.

저는 씨튼 힐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디지털 화상에 대한 강의를 하고 미술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씨튼아트서비스협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 가르치는 일을 무척 좋아해요. 디자이너와 예술가로 성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받곤 하지요. 씨튼아트서비스협회 담당자인 캐서린 맥그레디 수녀(Kathleen McGrady)님을 도와 학생들을



유치하고

코디네이터로서 씨튼 힐 대학 예술대학과 수녀회의 중재를 맡고 있습니다.



수녀회 간행물인 Celebration을 비롯한 디자인 그래픽 활동을 통해 수녀회의 은사를 전하고 있어요. 전 또 로체스터테크놀로지에서 석사과정을 할 때 배운 대체사진기술과정(alternative photo process)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진 활동도 하고 있지요. 제 지도 교수님은 제게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사진에 담아라”하고 조언해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사진 활동을 해 왔어요. 그래서 최근 씨튼 힐 대학에서 제겐 아주 친숙한 씨튼 힐 대학 성당인 성요셉성당을 담은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에서 늘 공동체 기도, 개인 기도도 바쳤고

강의실로 갈 때마다 이 곳을 지나 갔던 수많은 흔적이 배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 때마다 전 성당의 아름다움에 늘 매료되곤 했답니다.

사진 작가로서 제 포부는 주변 경치를 포착해서 창조의 아름다움, 일상의 모든 사물,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추억을 전하는 데 있어요. 제 작품은 종교적인 심상을 많이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의 영적인 관점으로 사진을 찍고 또 합성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즉, 하느님과 관계, 자연과의 유대, 하느님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고자 늘 의식하면서 사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